

# 오키나와, 수난의 땅

소통과혁신연구소

2025.5.7

# 오키나와, 미국-일본의 이중식민지 상태

- 오키나와현: 큐슈 가고시마-대만 사이 오키나와, 다이도, 미야코, 센카쿠(중국과 분쟁 다오위다오) 등 140여개 섬. 총면적 2,266km<sup>2</sup>(제주도 1,847km<sup>2</sup>). 해역 넓이 일본 본토 관할수역의 30% 이상. 일본 육지면적의 1.1배. 미국의 군사전략 가치-중국 활처럼 포위, 항공모함 역할.
- 류큐(琉球)왕국: 1429년 산남(山南)/중산(中山)/산북(山北) 통일. 중국에 조공. 중개무역으로 번성. 홍길동전의 울도국
- 1591년 임진왜란 전 사쓰마번(현 가고시마) 군량미 1만5천석 요구, 거절
- 1606 사쓰마 다이묘 침략, 북부 5개섬 할양, '비무(非武)'의 섬. 당수(唐手)->공수(空手:가라데), 태권도
- 1879년 일본, 군사력으로 점령.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 일제 침략전쟁의 시작
- 태평양전쟁 말기 1945년 오키나와 전투로 주민 1/3(12만명) 희생. 미국 점령 군사기지화. 1972년 일본 반환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일본의 이중식민지 상태
- 슬픈 역사를 숨긴 관광 명소가 된 오키나와

## 오키나와의 역사



구스쿠 시대  
삼산 시대  
(1322 ~ 1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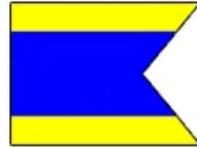
류큐 왕국  
(1429 ~ 1609)



류큐 왕국  
(1609 ~ 1879)



오키나와 현  
(1879 ~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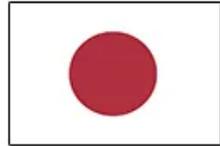
미국 통치기 류큐 열도  
(1945 ~ 1972)



오키나와 현  
(1972 ~ 현재)



사쓰마 번



일본 제국



미합중국



일본국

## 오키나와 역사

1873년	류큐왕국의 외교·사법권 일본에 귀속
1879년	일본 정부, 류큐를 오키나와현으로 편입
1945년	미군 오키나와 상륙, 일본 패전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미 군정, 오키나와 통치 시작
1972년	오키나와 일본에 반환
1975년	오키나와 방문 왕세자 부부에 화염병 투척 사건
1995년	미군의 소녀 성폭행 사건 발생...대규모 항의 시위
2012년	후텐마기지에 신형수송기 오스프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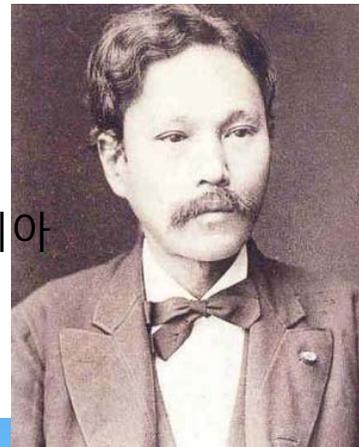


오키나와 평화공원(사진=그린포스트)





류큐국의 왕궁 슈리성



마쓰다 미치유키 / 위키피디아



류큐국의 마지막 국왕, 쇼타이(尙泰)왕. / 위키피디아





오кина와 타마우둔(玉陵)에 있는 쇼타이왕의 무덤 /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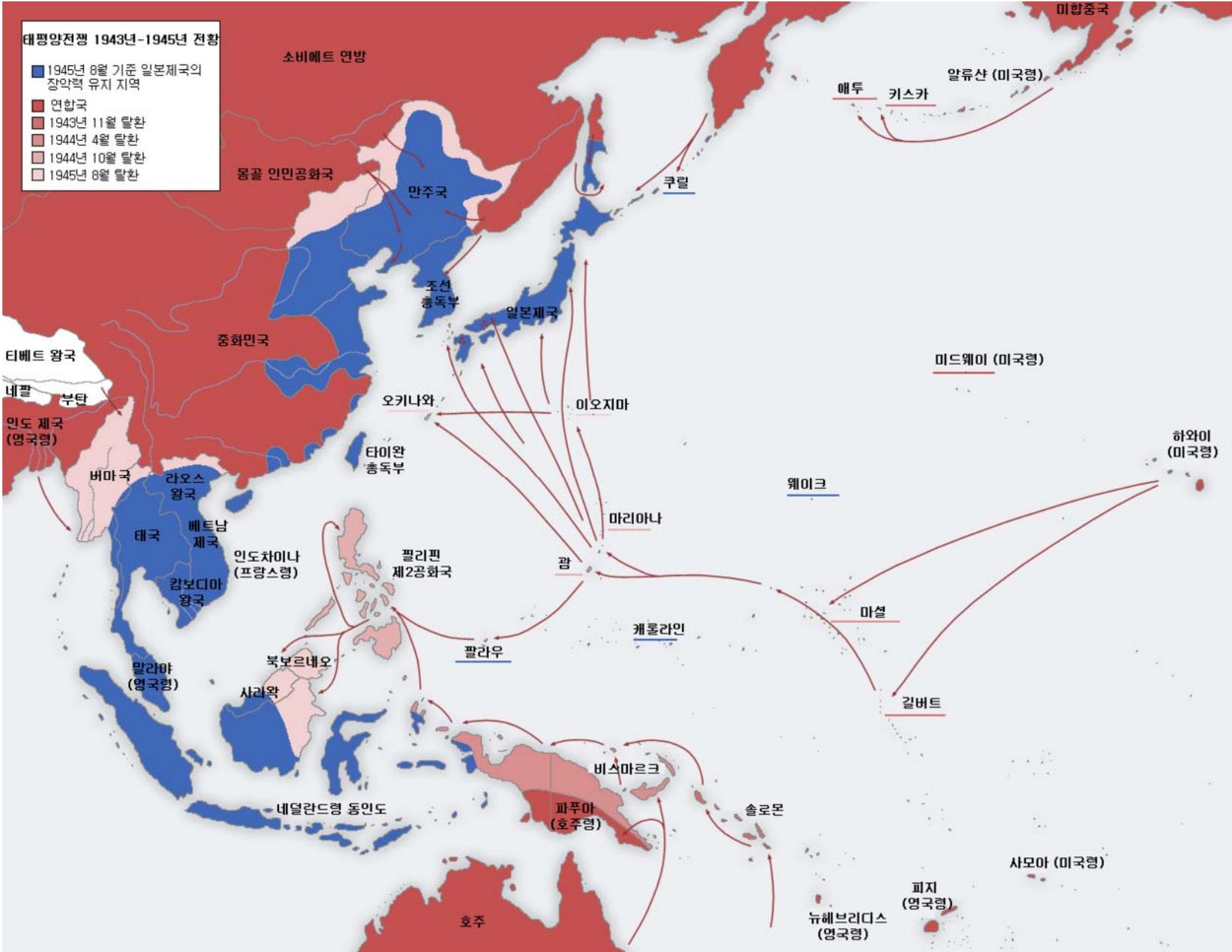
오кина와의 명물 중 하나인 추라우미 수족관. 일부 오кина와현으로 반환된 미군 기지를 관광리조트로 개발한 덕분에 지난해 오кина와를 찾은 관광객이 705만 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62%나 늘었다.



# 비극의 오키나와 전투

- 1941.12.7 일본 하와이 진주만 공습. 1942.6.3-6 미드웨이 해전. 1942.8.7-1943.2.9 과달카날(솔로몬제도) 전역.
- 1944.7.9 사이판 섬(괌 북쪽, 북마리아나 제도) 함락. 레이테 섬(필리핀 중부 비사야 제도), 오키나와 예정된 과정.
- 일본大本營(전쟁본부) 오키나와 방어대책-본토 결전 준비를 위한 시간 벌기, 희생양, 방패막이. 본토 사수를 위한 '방파제', '사석(捨石)'.
- "'일본의 패전은 필연'이라는 인식하에 싸워야 했던 오키나와 전투는 미국과 일본의 마지막 지상전이였다. 오키나와 주민에게는 처형사의 '고뇌와 굴욕의 원점'이 되었다. 10만여 오키나와 주비군 임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본토침공'을 막기 위해 치우쳐서 본토 결전 준비와, 철저히 교섭시기를 벌어야만 했다. 오키나와 수비군은 오키나와 현에 '군민공생공사(軍民共生共死)'의 일체화를 지시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전력화해야 할 것'이라며 담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쟁에 동원했다"-<류큐신문> (200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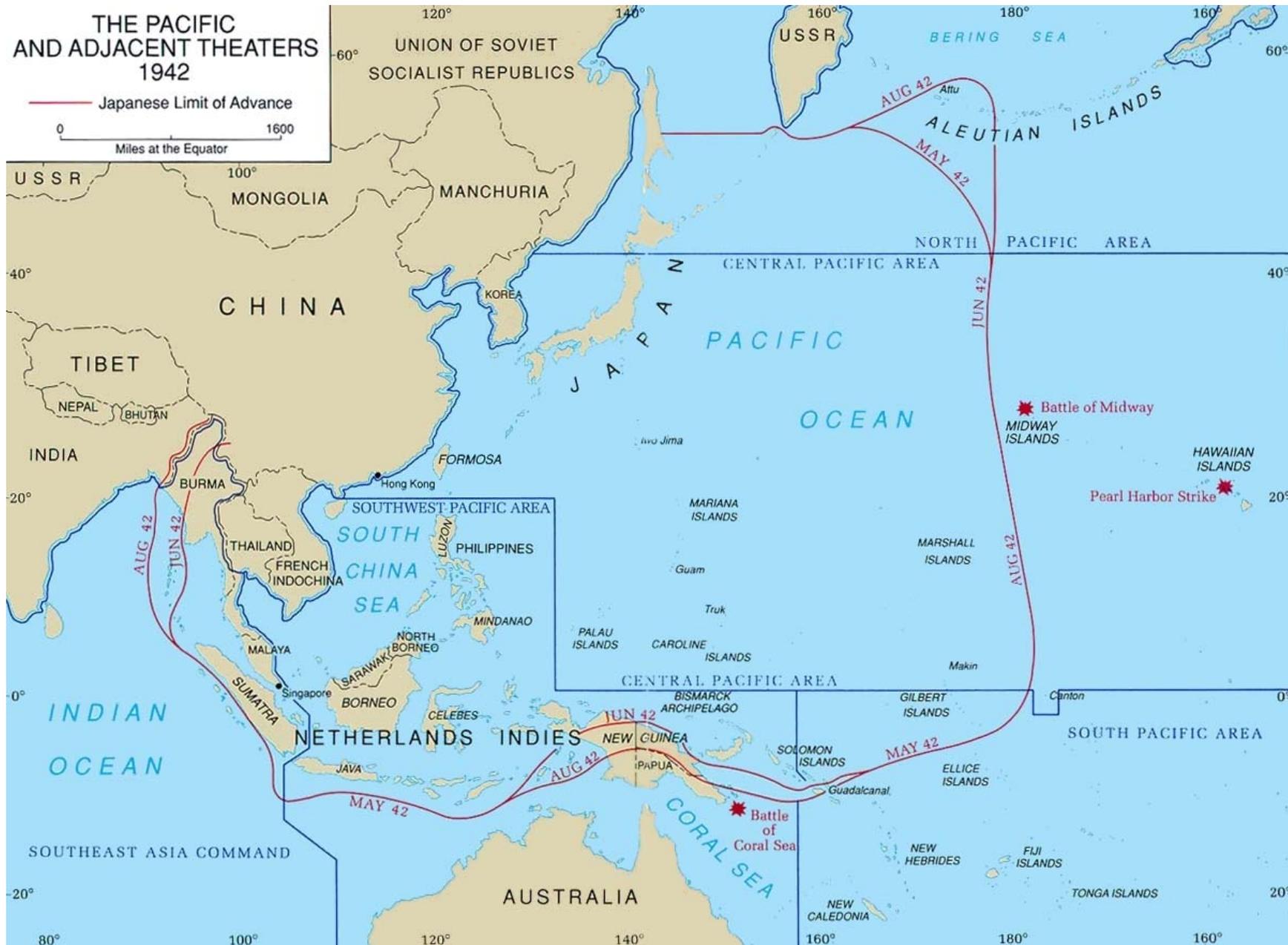
- 1944.8. 쓰시마루호 미군 잠수함 공격으로 침몰, 1418명 사망
- 1944.10.10 미군 공중폭격으로 오키나와 현 주도 나하시 90% 파괴, 668명 사망
- 1945.3.23 공습, 해상포격. 3.26 미군 오키나와 현도 나하시 서쪽 40킬로 케라마체도 상륙
- 전투 시작과 함께 일본군 주민들에게 집단 자결 강요(미군스파이 우려). 1945.3.26-6.21 30곳 강제 집단자결 및 일본군의 학살
- 오키나와 전투 미군 병력 54만여명, 1500여 척 전함 동원. 4.8 미군-일군 첫 초우
- 5.11 일군 사령부 슈리 공격, 일군 70% 전력 상실, 남쪽 도피, 저항선 구축
- 6.22 제32군 사령관 우시지마 중장과 참모장 이사무 자결, 일본군 조직적 인 작전 종결
- "1만여명의 조선인이 전사하거나 학살되었다"-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조선인 위령탑
- 1945.3.27-6월말 10,740명(군인 7,401명, 노무자 3,339명) 전쟁포로, 285,272명의 민간인 수용소 구금
- 매일같이 "인간이 아니라 벌레처럼" 죽어갔다. 오오따는 동료학생 386명 중 226명이 죽었다.
- 전쟁은 끝났으나 오키나와의 수난은 계속되었다.



# THE PACIFIC AND ADJACENT THEATERS 1942

— Japanese Limit of Advance

0 1600  
Miles at the Equator







오키나와에 상륙하는 미군(1945.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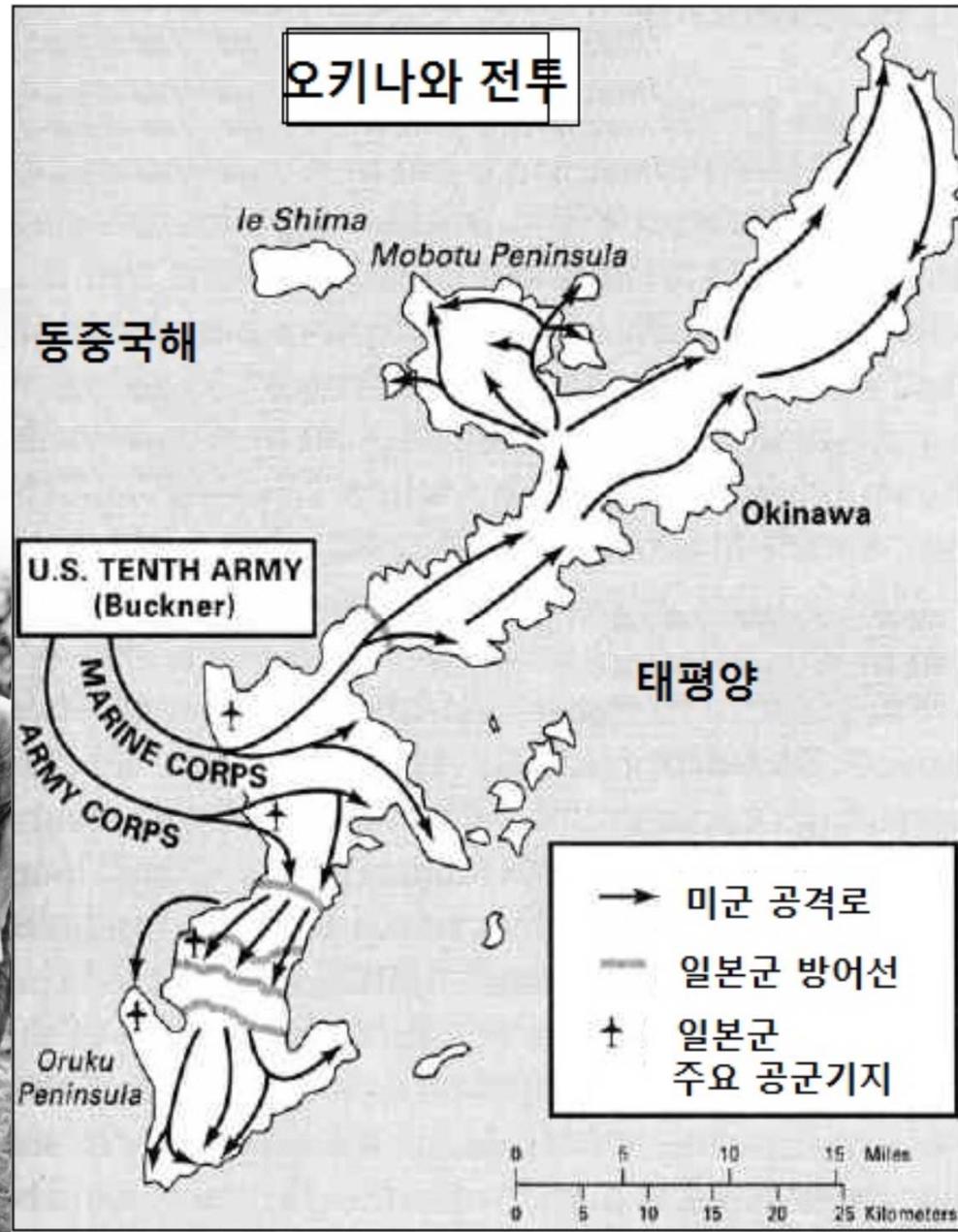


미군수용소에 수용된 오키나와 주민들





오키나와 전투중의 소년,  
소년병 / 위키피디아





마루키의 오키나와 전쟁도의 한 부분.  
지옥을 연상시킨다.



# 전쟁 후 오키나와의 운명

## -미국과 일본의 이중식민지, 군사기지

- 1945.9.2 도쿄만 정박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문서 조인, 미군정 실시
- 1947.6월말 맥아더 "오키나와를 미군이 지배하고 미 공군의 요새로 만들면, 일본이 비무장국가가 되더라도 (군사적) 진공지대가 되지는 않을 것"
- 1947.4 미극동사령부(도쿄) 해체, 태평양지구사령부(하와이) 설치. 7월 유엔사령부 서울로 이동, 주한미군사령부 창설
- 일본 본토 철수 미 지상군 부대, 해병대 오키나와로 이전. 일본 본토 기지 1/4로 축소, 오키나와 2배로 증가. 일본 전체 면적의 0.6%의 오키나와에 일본내 미군 시설의 76%, 주일미군의 65%가 배치, 오키나와에 일본 본토 기지밀도의 100배
- 1950.8.10 경찰예비대 창설, 2년 후 보안대로, 다시 2년 뒤 자위대로. 한국전쟁과 함께 일본은 미국의 전략상 공격기지, 후방지원기지로 부상, 일본의 조선특수, 경제발전
- 1952년 미군정 종식, 그러나 오키나와 부근 섬들은 1972년까지 미국의 직접 점령지
- 1953년 미 오키나와 민정부, 포고 26호 공포-미군 군용지 강제 사용 확인, 농민들의 거부 투쟁-미군의 불도저와 총칼 저지
- 1965.2 톰킨만 사건 발발, 미군의 베트남전 전면 개입. 오키나와 전쟁기지 역할. 오키나와 주민들 기지반태투쟁 과정에서 베트남인들과의 연대 의식 확인
-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오키나와 반환 문제 제기. 기지 해체 없이 주권만 일본에 귀속하려는 의도
- 1972.5.15 오키나와 일본에 반환. 미군사기지 그대로 둔 채. 오키나와 섬 전체 면적의 22%(현 전체 12%)가 미군기지. 일본 자위대 6천4백명 배치.
- 1980년대 경제관계 중심, 현실사회주의 붕괴, 동서 냉전 종언과 함께 오키나와 미군기지 정리, 축소, 철거 요구.
- 그러나 미국의 패권적 지배체제 강화 요구, 이라크 전쟁 후 일본의 새로운 군사/안보 정책 방향

- 1995.9.4 미 해병의 12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발생. 23년간 미군 범죄 4790건, 살인 12건, 강도 355건, 부녀자 폭행 32건 등
- 미군 범죄 규탄을 넘어 기지연장 반대투쟁으로 발전
- 1995.9.28 오오타 지사, 토지 강제 수속 대리 서명 거부
- 1996.1 오키나와 현, 기지 반환 및 국제도시 구상 발표
- 1996.3.29 일본 수상 하시모토 류타로 대리서명, 미군기지 강제 사용 가능
- 2005. 미국과 일본정부, 후텐마기지 재편안 마련(헤노코 연안 공항 및 기지 건설)
- 2007.7 참의원 선거 민주당 승리, 오키나와 현 바깥 이전 주민 요구 지지
- 2009.9 민주당 정권 성립, 민주당 미국 압력에 굴복해 입장 전환
- 2012.12 자민당 압승, 오키나와 내 헤노코 이전 입장 확고
- 2014.11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에서 '오키나와 기지 반대' 입장의 오나가 다케시 당선
- 2015.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 헤노코 미군 기지 건설 작업 중단 지시. 5월 미국무성 관리 만나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 반대 의사 전달
- 2015.4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9월 안보협력법안(<무력공격사태법> 등) 통과. <중요영향사태법>-유사시 전 세계에서 미군 지원, 한반도 상륙 가능
- 2015.10.13 오나가 지사, 헤노코 해안 매립 허가 취소 발표. 일본정부 행정소송 제기
- 2016.5.19 미군무원, 20대 현지 여성 살해 사건, 주민 6만 명 미군기지 철폐 집회
- 2019.10.19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현의 결정은 위법" 이라고 판결, 기지 공사 재개
- 2023.9.4 일본 최고재판소,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 지사의 방위성 설계 변경 신청 불승인 조치에 대한 국토교통성의 '시정지시' 적법 판결
- 2024.8. 일본정부, 오키나와 현정부 대신해 헤노코 지역 매립공사 대집행, 기지 건설공사 본격화, 2030년대 중반 공사 마무리 방침
- 2024.9.8 오키나와 현 기노완 시(후텐마 비행장 소재지) 시장 선거에서 비행장 이전 찬성파 후보 승리

## 후텐마 기지 주요 일지

- 1995년 주일미군 병사, 오키나와 소녀 성폭행
- 1996년 미일, 후텐마 기지 반환 및 오키나와 현내 이전 합의
- 1999년 일본, 후텐마 기지를 나고시 해노코 연안 이전 결정
- 2004년 후텐마 기지 인근 오키나와 국제대에 미군 헬기 추락
-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오키나와 현외로 후텐마 기지이전 표명
- 2010년 미일 공동성명 통해 기지 이전처를 해노코로 결정
-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 2013년 3월 일본, 오키나와현에 해노코 연안부 매립 신청
  - 4월 미일, 해노코로의 기지 이전을 전제로 2022년도 이후 후텐마 반환 합의
- 12월 25일 아베 총리,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에게 매년 3,000억엔대 오키나와 지원책 제시
  - 26일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전격 참배
  - 27일 나카이마 지사, 해노코 매립 승인
- 2014년 1월 나고시장 선거에서 해노코 이설 반대 이나미네 시장 재선
  - 8월 오키나와 방위국, 해노코 연안 매립위한 부표 설치
  - 9월 스가 요시히데 국방장관, 2019년까지 후텐마 기지 운용정지 발표
  - 11월 나카이마 지사 낙선
  - 12월 5일 나카이마 지사, 해노코 매립공법 변경신청 승인
  - 14일 총선거 자민당 후보 4명 전원 소선거구 낙선(비례대표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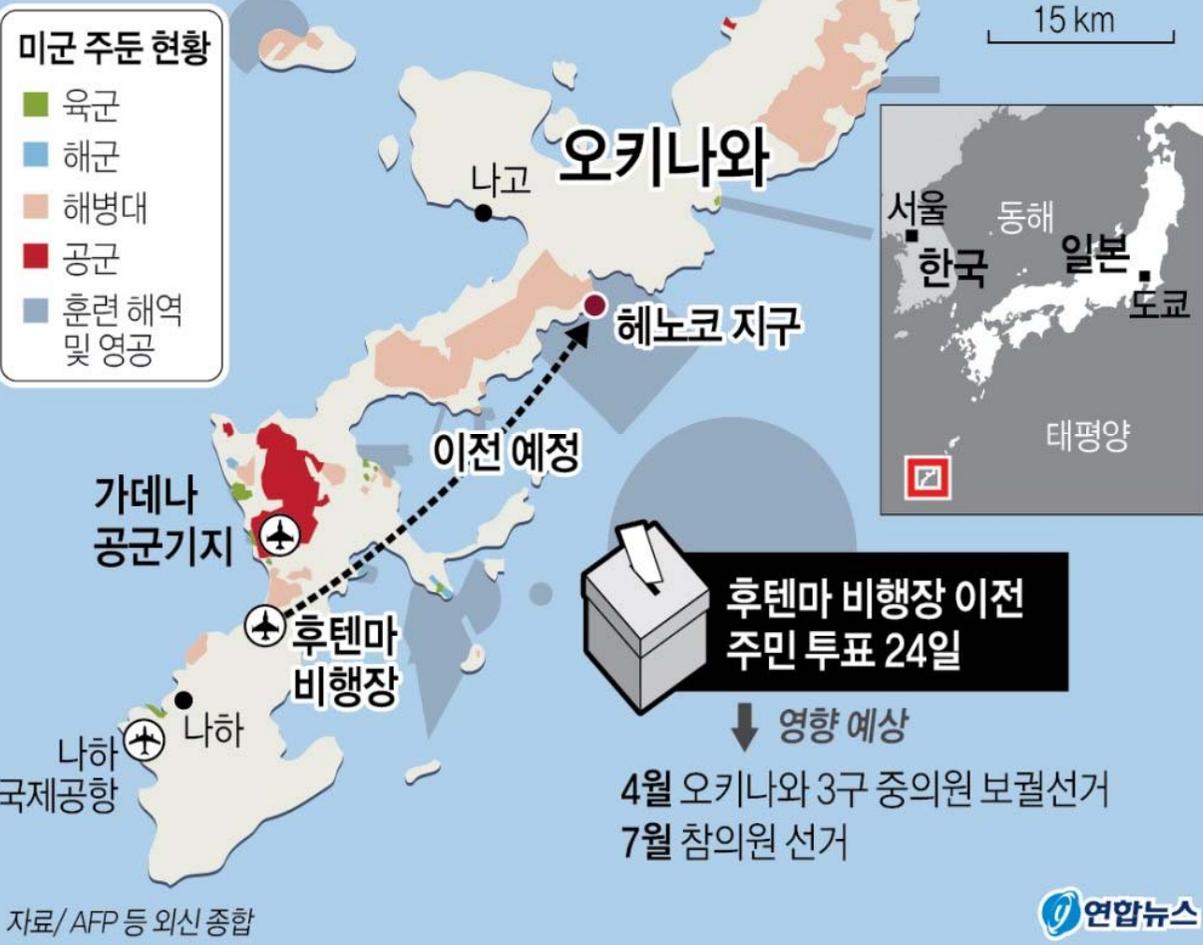
## 일본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이전 관련 주요 일지

1995년 9월	오키나와 주둔 미군병사, 12세 소녀 성폭행 → 미군기지 반대 여론 고조
1996년 4월	미일 정부, 5~7년 내 후텐마 미군기지(비행장) 반환키로 합의
9월	오키나와현 주민투표, 미군기지 축소와 미일 지위협정 개정에 89% 찬성
12월	미일 정부,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동쪽 해안으로 이전 합의, 나고시의 해노코 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부상
1997년 12월	나고시 시장, 하시모토 총리에게 "해노코 이전 받아들이겠다" 표명
1999년 11월	오키나와현, 미군 기지의 해노코 이전 수용 공식 발표
2002년 7월	정부-오키나와현-나고시, 비행장 건설 위한 해노코 앞바다 매립 합의
2006년 5월	미일 정부, 2014년까지 해노코에 새 미군기지 건설 완료 합의
2009년 9월	'후텐마 기지, 오키나와현 이외 지역으로 이전' 공약 내건 민주당 정권 출범
2010년 5월	하토야마 총리, 당초 공약 번복해 "원래대로 해노코 이전" 방침 표명
2013년 3월	정부, 해노코 연안부 매립 승인을 오키나와현에 요청
4월	미일 정부, 해노코 이전 전제로 후텐마 기지 2022년 이후 반환 재합의
12월	오키나와현 지사, 해노코 연안부 매립 승인
2014년 11월	'해노코 이전 결사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 당선 → 해노코 이전 계획 취소 강력추진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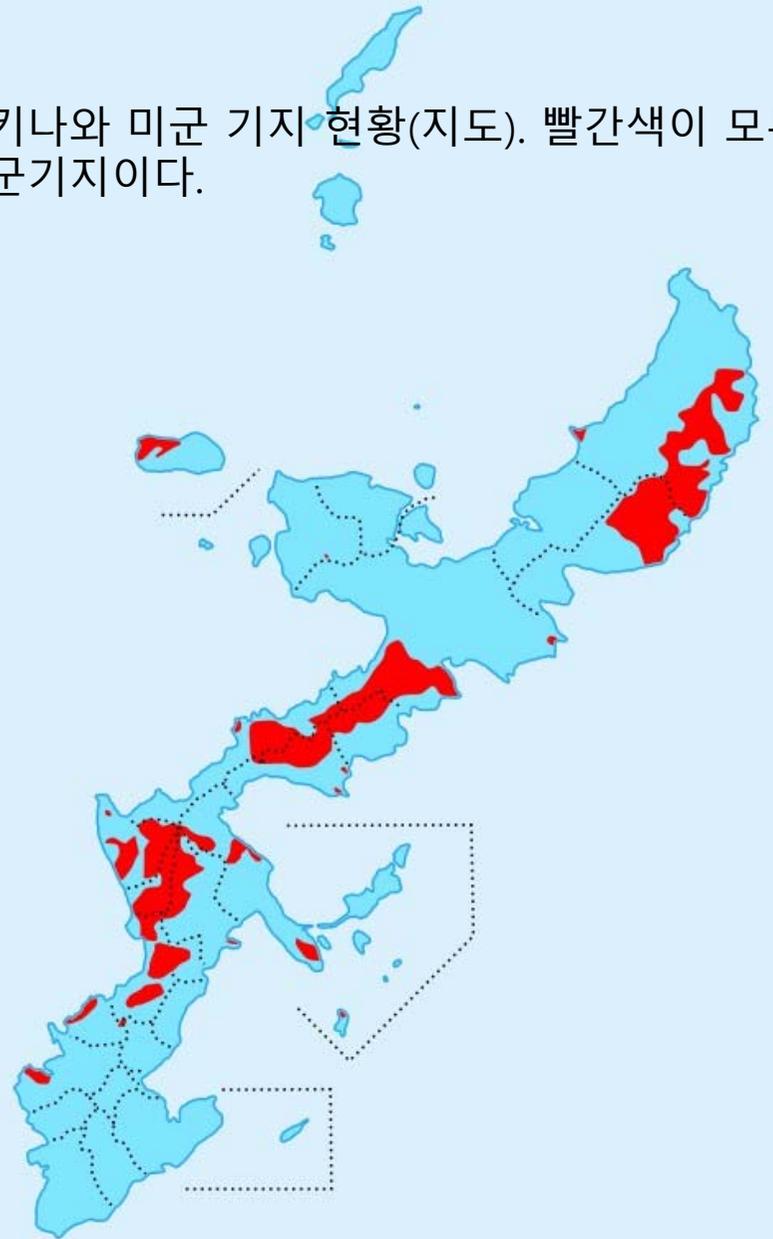
2015년 10월	오나가 지사, 전임 지사가 했던 매립 승인 취소
11월	정부 "오나가 지사의 매립 승인 취소는 위법" 제소 오키나와현도 정부 상대 소송 제기
2016년 12월	최고재판소(대법원) "오키나와현의 매립 승인 취소는 위법"…정부 승소
2017년 4월	정부, 해노코 이전 예정지에서 기초시설 공사 착수
2018년 8월	오나가 지사, 췌장암 사망 → 오키나와현, 매립 승인 철회 강행
9월	오나가 전 지사의 유지를 계승한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 당선
10월	정부, 오키나와현의 매립승인 철회 조치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 결정
12월	정부, 해노코 건설 예정지 바다에 토사 투입 개시 → 매립 공사 본격화
2019년 2월	오키나와현 주민투표 주인의 72% '해노코 이전 반대'
	아베 총리 "후텐마 기지 이전 더 늦출 수는 없어" 공사 강행 의지
3월	다마키 지사, 아베 총리 만나 '해노코 이전 반대' 주민 의견 전달

# 오키나와와 내 주요 미군기지

오키나와 현 면적 : 2천281km<sup>2</sup> / 인구 : 145만935명(2018년 기준)



오키나와 미군 기지 현황(지도). 빨간색이 모두 미군기지이다.



## 오키나와 미군기지 현황



## 오키나와 군사기지 배치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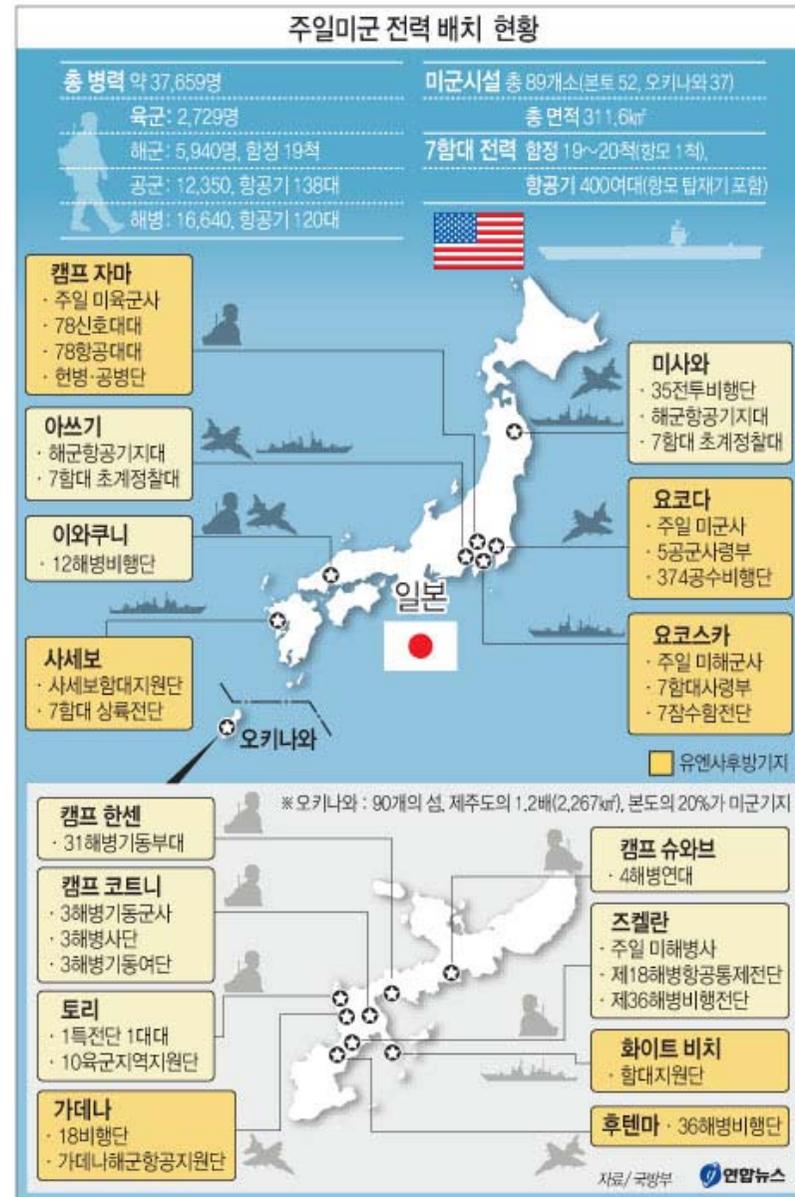


\*카데나 탄약창 크기에 주목하지!

카데나 공군기지보다 더 큰 크기의 카데나 탄약창... 얼마나 많은 미사일과 탄약이 보관, 운용중일지 짐작조차 안간다.  
 카데나 공군기지 외에도 요미탄과 레시마에 보조 비행장을 운용중이며 후텐마 비행장의 일부도 미군이 쓰고 있음을 알 수있다.  
 총7개소의 주둔기지과 6개소의 통신센터(레이더 기지) 5개소에 달하는 훈련소 이 모든 기지를 다 합친 면적만큼 큰 북쪽 훈련센터.  
 최근 이지역에 6개의 비행장과 훈련장을 건설한다고 한다. 또한 화이트비치에 해병대기지를 신설한다고...  
 나하와 텐잔만에 해군기지를 두고있는 오키나와는 지금 송두리채 군사요새화 되고있는 것이다.



반종민 기자 / 20121204  
@yonhap\_graphics(트위터)



[https://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3154&table=byple\\_news](https://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3154&table=byple_news)

## ‘오끼나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일본 열도 최남단에 위치한 오끼나와(沖縄)가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사뭇 진지하고 엄숙하지요.

지난 5월 마쓰시마 야스카쓰(松島泰勝) 류우코쿠(龍谷)대학 교수 등 오끼나와 지식인들은 ‘류큐민족 독립종합연구학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마쓰시마 교수는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의 팔라우는 인구 2만명의 작은 섬이지만 어엿한 독립국”이라며 “인구 140만명인 오끼나와가 독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요.

새로 결성된 학회는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주민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독립을 선언하고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UN 헌장과 국제인권규약이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데다 팔레스타인이 지난해 11월 ‘옵서버 조직’에서 ‘옵서버 국가’로 격상된 점을 염두에 둔 것이지요. UN ‘탈식민지화 특별위원회’가 탈식민지화를 추진하는 ‘비자치령’ 명단에도 ‘류우큐우’ (오끼나와의 옛 지명)로 등록시킬 방침입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오끼나와는 약 130여년 전인 1879년까지 엄연한 독립국가였습니다. 1600년대 들어 일본의 침공을 자주 받다가 메이지(明治) 정권에 의해 강제 병합돼 오늘의 오끼나와 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자 미국에 의해 1972년까지 점령당했다가 반환되는 운명을 겪기도 했지요.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일본에 귀속된 역사가 100년도 채 안





“분노가 한계를 넘었다.” 6월19일 일본 오키나와 오노야마공원 육상 경기장에 주민 6만5천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4월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 근무하는 미국 해병 군무원이 20살 일본 여성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며 대규모 ‘현민대회’를 열었다. REUTERS 연합뉴스

### ≡ 한겨레21

지난 6월19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에 있는 오노야마공원 육상 경기장. 기온 32°C의 무더운 날씨였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이들의 가슴에는 격렬한 분노와 슬픔이 더 뜨겁게 들끓었다. 이날 미국 해병 군무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오키나와 현민대회’에 무려 6만5천 명의 시민이 찾았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미군에게 살해된 20살 여성 피해자를 추모하고 미 해병대의 철수를 요구했다.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75.html](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75.html)

미군기지 74%가 밀집된 0.6%의 섬



## 오키나와 해역

국제

# [동북아 정세] 일본 오키나와, 동아시아의 새 화약고 되나? -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70년 미일 안전보장체제 ‘흔들’



콘도 다이스케 일본 <주간현대> 부편집장

[https://www.m-](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449)

입력 2015.05.17 18:18 | 수정 2015.05.26 17:08 | 오수 201506 | 100면

[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449](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449)

미군기지 필요로 하는 건 미국이 아닌 아베 정권이란 인식 확산 ... 올여름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결구도 정점에 이를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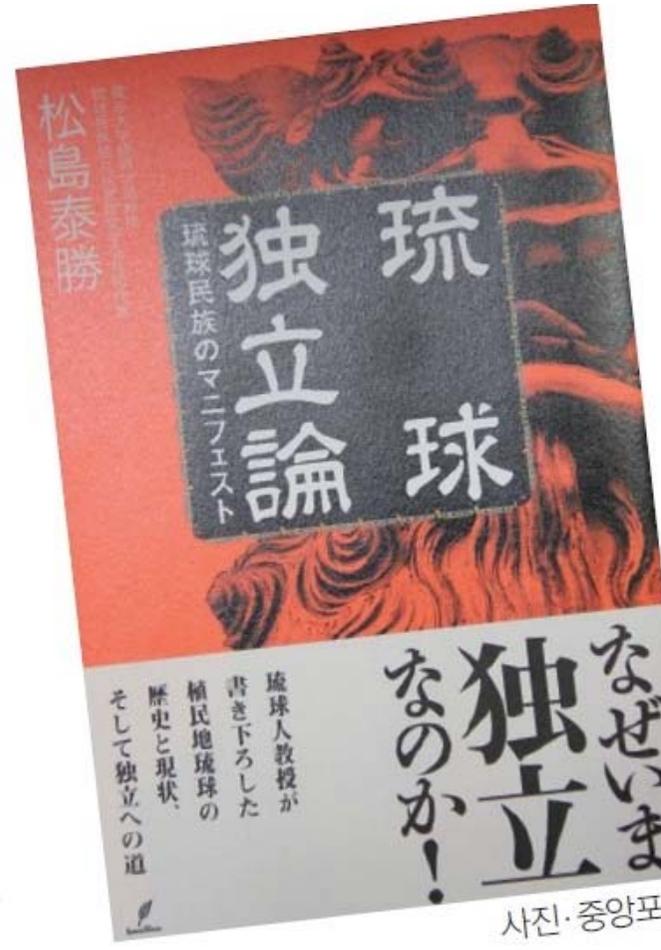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 중앙정부에 대한 역사적 피해의식이 누구보다 강하다. 독립을 빼앗기고 미군기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오키나와를 중국 해상 무력의 확장을 저지할 전진기지로 간주하지만, 실상 21세기 미군의 동아시아 방위 전략의 중심은 알래스카, 하와이, 괌 세 곳이다.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철수론이 힘을 얻을 때, 한·미·중·일 4국의 동맹과 대결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 많이 본 뉴스

- 1 한국 정치의 역습
- 2 'MZ들의 놀이를 가다
- 3 불완전이 온 페어링
- 4 "오키나와"





HOME > Global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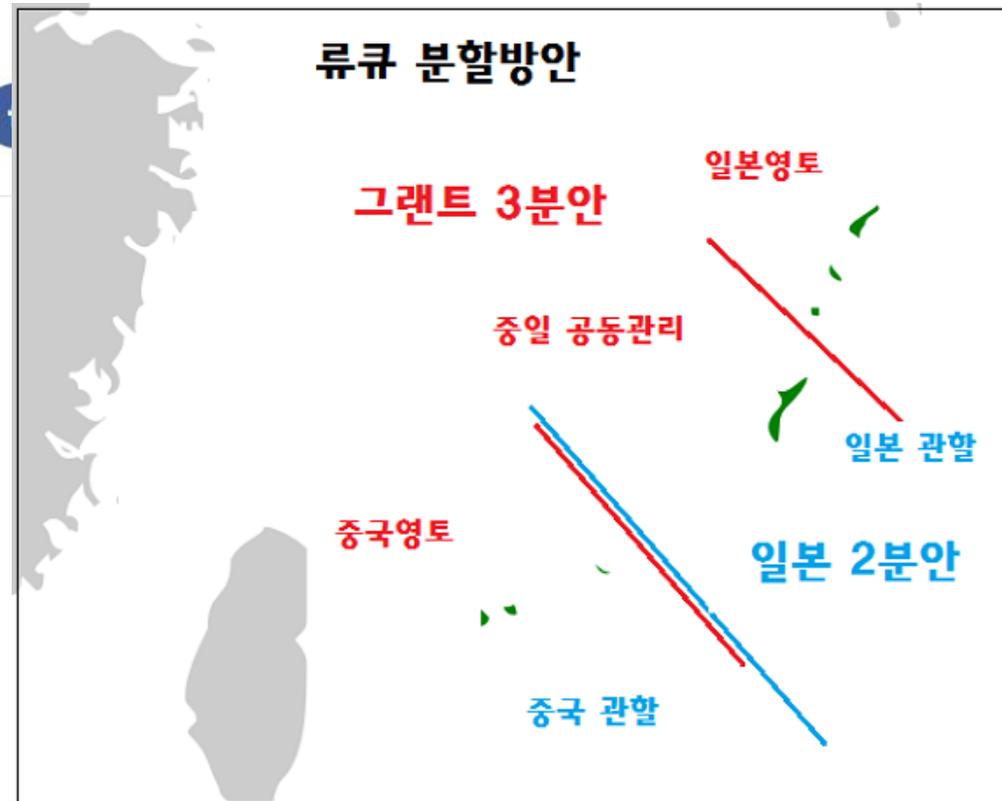
## 비운의 오키나와 역사Ⓜ...日, 류큐를 삼켰다

김인영 기자 | 승인 2016.11.15 09:57 | 댓글 0

중국서 포위하는 전략적 거점...1879년 일본 합병 이전에는 독립왕국

오키나와 열도는 원래 일본땅이 아니었다. 137년전인 1879년 일본에 합병되기 이전까지는 중국에 조공하는 독립왕국이었다. 이 열도는 일본과 중국, 미국에 둘러 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슬픈 역사를 안고 있다. 아직도 미군기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오키나와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본다.

일본 오키나와현은 규슈 가고시마현에서 대만 사이에 활처럼 휘어져 있어 류큐호(弧)라고도 한다. 오키나와, 다이도, 미야코, 야에야마, 그리고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등 크고 작은 140개 섬으로 구성돼 있다. 총면적은 2,266km<sup>2</sup>으로 우리나라 제주도(1,847km<sup>2</sup>)보다 약간 넓다. 그러나 오키나와현의 해역 넓이는 일본 관할수역의 30%를 초과한다. 해상면적이 일본 육지면적의 1.1배나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대륙을 활처럼 포위하고 있는 항공모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곳이기도 하다.



## 오키나와 정체성의 표상, 다마키 데니



전주의 시민운동단체 '한몸평화'와 함께 오키나와에 다녀왔다. 기행의 막바지에 이예지마(伊江島)를 찾았다. 오키나와 북부의 모토부(本部)항에서 뱃길로 30분, 10km도 안 되는 거리다. 둘레 18km, 인구 4,500명의 땅콩 깍지 모양의 조그만 섬에는 2차대전 당시 동양 최대의 군용비행장이 있었으며, 섬의 최고봉, 172m의 성산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본 군민 3,500명이 죽고, 1,120명의 미군 사상자가 나오는 격전이 벌어졌다. 섬을 점령한 미군은 비행장을 확장하여 훈련장으로 사용했다가, 6·25전쟁이 터지자 북한을 겨냥한 모의핵폭탄 투하훈련장으로 이용했다.

처음에는 섬의 절반(지금은 20%)이 군용지로 강제 수용되어 주민들은 2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다 집도 땅도 빼앗기고 내동댕이쳐졌다. 그래도 고향에 돌아가서 수용된 땅에 토막을 짓고 농사도 지었는데, 주기적으로

미군이 와서 다시 집을 파괴하거나 농민을 붙잡아 갔다. 농민들은 1954년부터 토지의 반환과 보상, 미군의 폭력 반대를 외치고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섰다. 그때부터 수백 명의 남녀노소는 섬을 나가서 1년 이상 오키나와의 마을마다 걸식하면서 미군의 포악과 농민들의 곤경을 호소하는 '거지행진'을 벌였다. 같은 처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전 오키나와를 뒤흔드는 '시마구루미'(온 섬, All Okinawa) 투쟁으로 발전하니, 1958년 미군은 토지사용료의 대폭 인상 등을 약속하게 되었다.

'시마구루미' 투쟁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2014년 당시 자민당 소속 나하시장이던 오나가 다카시(翁長 雄志)가 당의 정책을 거슬러 헤노코(野古) 지지 건설 반대를 표명하여 출당되면서도, 범야권 후보로 현(縣)지사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오나가는 '이데올로기보다 아이덴티티'라는 구호로 초당파적 선거태세를 만들어 'All Okinawa'라고 불렸다. 일본에 의한 오랜 오키나와 지배와 차별, 그리고 일본 면적의 0.6%에 지나지 않는 오키나와에 주일미군기지의 70%가 몰려있는 부조리를 권력과 돈으로 밀어붙이려는 아베정권의 오만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러 그들을 각성시켰다. 그래서 오나가 지사는 아베의 헤노코 지지 건설 강행에 완강하게 맞서다가, 2018년 8월에 갑자기 암으로 죽었다. 이에 따라 9월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계의 소수정당인 자유당 소속의 다마키 데니(Deny 玉城)라는 이색적 인물이 큰 정당 사이의 상호 견제 속에 다분히 어부지리적인 요행도 작용하면서 지사 후보가 되어 현지사로 뽑혔다.

그는 미 해병과 이에지마 출신의 여성 사이에 태어났다. 다마키는 미국으로 가버린 아버지의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 어머니는 오키나와에서 일하고, 이에지마에서 사는 그는 다른 아주머니가 키웠다. 오키나와 본섬의 고교를 졸업하고, 라디오의 MC,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경묘한 우치나구치(오키나와 말)로 노인들의 인기를 모았다. 2005년에 오키나와시의 시의회 의원에 당선되고, 2009년에 민주당 후보로 중의원에 출마하여 내리 4선을 했다. 소수정당 소속의 그가 국회의원이거나 현직사가 된 것은 다분히 운이 작용했지만, 미군병사를 생물학적 아버지로 둔 가난한 미혼모의 아이가 지사가 된 것은 미군이 버리고 간 ‘아메라시안(오키나와에서 만든 American과 Asian의 합성어로 미군과의 혼혈아의 뜻) 아이들이나, 미군기지에 성적 착취를 당하며 사는 여성들이 혼한 오키나와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역으로 아버지가 미국인이니까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어서 굴절된 오키나와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면도 있었다.

이번 지사선거에서 다마키는 39만6,632표를 얻어 자민당 후보에 비해 8만 표가 많은, 역대 최대 표차로 승리했다. 선거 출정식을 베키인 고향 이에지마에 우뚝 선 성산에서 연 것은 정체성에 대한 그의 집착을 시사해준다. 그의 승리 요인에는 요즘 보수화되어 가는 젊은이들의 높은 지지율도 있다고 한다. 텔런트 출신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경묘하게 말하는 다마키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가 젊은이들의 호감과 지지를 받았다. 오만불손한 아베에게 감연히 맞서는 그의 모습은 포스트모던적인 동아시아

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키나와가 아베의 과거회귀 구상에 걸림돌로 버티고 있다. 오키나와는 ‘태평양의 요석(Key Stone)’으로 미국의 냉전 최전선의 구실을 해왔다. 한국도 그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지배 체제의 구도 속에 위치해 왔다. 바로 그 ‘요석’이 다마키 데니라는 표상을 얻으면서 부메랑이 되어 아베의 뒤통수를 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지배에 심각한 균열을 내고 있다. 오키나와는 우리 문제이기도 하다.

\_ 2019. 1. 27

동아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한다

##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서 승 지음

## 오키나와의 역사체험과 ‘비무(非武)의 평화’ 사상\*

나미히라 쓰네오(波平恒男) 류큐대학

이 글은 오키나와(沖縄)의 역사체험과 그것이 만들어낸 ‘비무(非武, 반군사주의)’에 의한 평화의 실현 사상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먼저 과거 ‘류큐(琉球)처분’이라고 불리는 1879년 일본으로의 오키나와 병합 사건을 ‘류큐병합(류큐 왕국의 병합)’으로 재인식하여, 지금까지 ‘병합(처분)하는 측’[메이지(明治) 정부]의 시점을 중심으로 고찰되고 해석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이를테면 ‘병합되는 측’의 시점으로 재평가하는 데 있다. 그다음 문제의식은 류큐병합을 동아시아 근대의 거대한 변동 속에 적절히 자리매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 즉 예로부터 내려온 중화제국중심의 국제질서에서 근대 일본의 식민지제국으로의 진출(신구제국의 교체)이라는 맥락으로 본다면 일본에 의한 ‘두 병합(류큐병합과 한국병합)’은 매우 유사한 사건이었다는 통찰이 가능해진다. 오키나와는 제주도도 매우 닮았다고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자의 현대사까지 관통하는 일련의 고난과 역압은, 한국전쟁을 비롯해 냉전이 가져온 동아시아의 다양한 분단 상황, 더 나아가 최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전략 차원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류큐 왕국이 ‘예의바른 나라’이며 ‘비무의 문화’를 가진 국가였다는 인식과 그것을 근거로 여기는 역사관이 정착되어 있다. ‘류큐처분’을 통해 메이지 국가로 편입된 이후 일본으로의 ‘동화’, 그 힘든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강요된 ‘차별’과 ‘배제’의 체질이 섞여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오키나와전 체질, 전후의 미군통치와 복귀운동 등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생산되어 왔다. 최근 일본 정부는 헤노코(辺野古) 바다를 매립하는 본격적인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오키나와는 또 한번 큰 기로에 서 있다. ‘분쟁과 평화의 기로’, 그 최종적인 위기 국면에 내몰렸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본토의 양심적인 국민, 해외의 지식인이나 군사주의 극복을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오키나와를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주제어 오키나와, 류큐병합, 비무(非武)의 사상, 역사체험, 군사기지

\* 이 글은 “오키나와가 이어가는 ‘비무의 안전보장’ 사상(『非武の安全保障』思想)(阿部浩己·島袋純 編), 『오키나와가 묻는 일본의 안전보장(沖縄が問う日本の安全保障)』(シリーズ日本の安全保障・第4巻, 岩波書店, 2015년)에 수록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번역: 다무라 후미노리/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 I. 들어가며

이 글은 오키나와(沖縄)의 역사체험과 그것이 만들어낸 ‘비무(非武, 반군사주의)’에 의한 평화의 실현이라는 사상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오키나와의 오랜 역사와 그것을 둘러싼 오키나와 사람들의 집합적 기억,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민중 사이에서 키워 낸 평화지향과 평화주의의 심성에 대해 개괄적이고 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sup>1</sup> 그러나 동아시아의 분단 상황을 만들어 내고 고착화시킨 ‘냉전’의 시대와 21세기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냉전기 이후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실제로 거론해야 할 많은 사안을 전부 끌어안지 못하고 지극히 한정해 고찰하고 있음을 먼저 밝혀둔다.<sup>2</sup>

2014년에 필자는 오랜 연구성과로서 『근대 동아시아사 속의 류큐병합: 중화세계 질서에서 식민지제국 일본으로(近代東アジア史のなかの琉球併合: 中華世界秩序から植民地帝国日本へ)』를 간행했다(波平恒男, 2014). 이 책에서는 근대 일본에 의한 류큐(오키나와)병합과 조선의 병합(한국병합)과의 유사성, 그리고 그 판연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하나의 큰 테마였다. 이 연구는 크게 나눠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종래 ‘류큐처분’이라고 불리는 1879년 일본으로의 오키나와 병합 사건을 ‘류큐병합(류큐 왕국의 병합)’으로 재인식했다. 이는 지금까지 ‘병합(처분)하는 측’[메이지(明治) 정부]의 시점을 중심으로 고찰되고 해석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이를테면 ‘병합되는 측’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데 있었다. 즉, 류큐·오키

<sup>1</sup> 이 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가 될까 싶어 간단히 필자 소개를 하고자 한다. 나(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대대)는 오키나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모교인 류큐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지금까지 고향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우치난추(ウチナンチュ, 오키나와인) 토박이이며, 대학에서는 정치학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면서도 고향이며 생활 터전이기도 한 오키나와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늘 고민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적 배경은 이 연구의 고찰에 나름대로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편견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sup>2</sup> 이 글의 그러한 한계는 주로 이전 원고가 『오키나와가 묻는 일본의 안전보장』 외의 공저자들과의 협업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자의 현대사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오키나와의 보다 현대적인 여러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이 책을 참조하여 이 글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바란다.

## 오키나와전투와 '1피트운동'의 기억의 정치

주은우  
중앙대 사회학과 부교수

### I. 오키나와의 '기억을 둘러싼 전쟁'

2009년 9월 일본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연립정권이 출범하여 1955년부터 자민당이 주도해 온 정국 구도에 종지부를 찍었다.<sup>1)</sup> '55년 체제' 수립 이후 54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곧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도했다. 오키나와 본섬 기노완(宜野湾)시 중앙에 위치한 미군의 후텐마비행장은 애초의 반환 약속을 깬 양국정부에 의해 나고(名護)시 헤노코(辺野古) 지역으로의 이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를 수용해 기지의 현외이설을 추진하려던 하토야마의 시도는 관료들과 기성 정계의 비협조와 무엇보다 미국의 강경 대응에 맞닥뜨려 실패했고, 1996년부터 격렬한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후텐마기지는 결국 2010년 6월 2일 총리가 사임하고 하토야마 내각이 260일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32-B00270).

1) 그에 앞서 1993년 일본신당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의 단명했던 8개 야당 연립정권 출범으로 38년에 걸친 자민당의 1당 지배가 끝난 바 있던 했다.

의 단명내각으로 끝나는 실질적인 원인이 되었다(진필수 2011).

이 일은 일본 국토의 0.6%에 불과한 면적에 제일 미군기지(전용시설)의 74.6%가 집중되어 있는 '기지의 섬' 오키나와의 상황에 대한 약간의 개선조차도 아직 얼마나 난망한 일인지 잘 보여준다. 두 번에 걸쳐 오키나와현지사(1991~1998)를 역임한 바 있는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가 역설하듯 '오키나와 문제'는 곧 '기지 문제'이며,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오키나와의 정체성과 자율성, 문화적 독자성, 역사적 기억 등 모든 쟁점들은 이와 연결된다(Yonetani 2003, 245). 이 전후 오키나와 문제의 기원은 무엇보다 '오키나와전투(沖繩戰)'에 있다(정영신 2008, 186).<sup>2)</sup> 그리고 이 "오키나와전투는 오키나와 역사에서 가장 외상적인(traumatic) 사건이며 현대 오키나와에서 가장 논쟁적인 기억(과 추도)의 자리이다"(Hein and Selden 2003, 12).

그런 만큼 오키나와전투에 대한 기억은 늘 치열한 투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2007년 3월 30일 문부과학성의 전년도 교과서검정결과 공표에서는 5개 출판사 7종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오키나와전투 당시 '집단지결'에 대한 기술에서 일본군에 의한 명령·강제·유도 등의 표현을 삭제·수정시킨 것이 밝혀졌고, 다음 날 신문들은 교과서검정에서 군의 '집단지결' 관여가 부정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검정결과는 광범위한 비판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오키나와의 항의는, 현 내 63개 단체가 공동추진한 '6·9 오키나와전의 역사왜곡을 불허하는 오키나와현민대회(6·9沖繩戦の歴史歪曲を許さない! 沖縄県民大会)'에 3,500명이 집결했고, 9월 29일 기노완 해변공원(宜野湾海浜公園)에서 열린 '교과서검정의견 철회를 요구하는 현민대회(教科書檢

2) 오키나와의 기지화·요새화는 일본군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으며, 오키나와전투 당시 미군은 상륙 당일부터 확보한 비행장을 정비해 활용하는 등 기지건설과 전투를 병행했다. 오키나와전투를 일본과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전(沖繩戰)'이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하위개념으로서 '오키나와전투'와 문맥에 따라 병용한다. 영어로는 'the Battle of Okinawa'이다.

##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 동향

조세영(국제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1. 서문

아베 정권은 작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했다. 제1단계 후속 조치로 올해 4월 대미 안보 협력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제2단계로 국내 법규 정비를 위한 안보 관련 법안(정식명칭은 「평화안전법제」, 이하 안보법제로 호칭)을 5월 국회에 제출했다.

안보법제에는 무력공격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공동 대처사태>와 같은 난해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일본 언론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할 정도다. 또한 6월 4일 국회에 출석한 일본의 헌법학자 3명이 모두 위헌이라고 답변한 사실에서 보듯이, 안보법제는 전력(戰力)의 보유와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 제9조에 위배되며 일본이 스스로 내세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국내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안경다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안보법제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며 일본 정부는 6월 하순

중의원(하원) 통과와 7월 말 또는 8월 초 참의원(상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미국 방문에서 늦어도 올해 여름까지는 안보법제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전력을 집중할 것이며, 그 실적을 토대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선과 본격적인 장기 집권 기반 구축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선 위헌 여부나 전수방위 원칙 위배 가능성과는 별도로, 안보법제가 통과된다면 현실적인 전체 하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해금 결정에 이어 안보법제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고 나면 일본의 안보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법안인 만큼, 아직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상태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기본 구조와 핵심 내용만이라도 정확히 정리하고 한국이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2. 안보법제의 핵심 내용

#### 가. 구조

안보법제는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국제평화협력(FPKO)법 등 10개의 기존 법규에 대한 개정 내용을 하나로 묶은 일괄 개정법안(「평화안전법제정법」)과 1개의 신규 제정법안(「국제평화지원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떠한 사태에서도 빈틈없는 안보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안보법제는 평시와 준유사시, 유사시의 모든 범주를 포괄하며, 또한 일본의 안보를 위한 조치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활동을 담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나. 일본의 안보를 위한 조치

일본의 안보를 위한 조치로서 첫째, 유사시에 허용되는 무력행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헌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일본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무력공격사태」) 개별적 자위권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경우가 유일하다. 그러나 안보법제에서는 더욱 폭넓게 무력행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존립위기사태>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 세라믹과학기술사

##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한국 청년들이 끌려가 일본을 위해 희생되고,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한국 소녀들이 위안부(성노예)로 강제 연행되어 일본을 위해 굴욕·희생당하다. 반성과 사과가 없는 범죄(침략전쟁)는 되풀이 된다! 일본은 왜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

글 \_ 이홍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① 오키나와에 세라믹 기술을 전한 위대한 대한민국 세라미스트, 장헌(張顯)!
- ② 위대한 평화주의자 대한민국 세라미스트가 전파한 세라믹 한류, 오키나와까지 가다!
- ③ 천황주의자 아베의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신제국주의·신군국주의 야망: 사과와 반성 없는 범죄(침략전쟁)는 되풀이 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본!
- ④ 오늘날 극단주의자들이 테러에 사용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법보다 더한 가미카제(자살특공대)와 '육체(강제자결) 수법'은 일본이 침략전쟁에 먼저 사용!
- ⑤ 일본의 침략주의의 근원은 국가신도(國家神道)·한국사관(韓國史觀)·아스쿠니신사(阿蘇國神社)·참배: 일본의 음모(陰謀)는 '타 민족 멸종'이고, '침략주의'는 '일본의 종교 인가'?
- ⑥ 일본의 압호(壓迫)를 해독하라!
- ⑦ 평화주의 대한민국과 침략주의 일본의 미래는? 한국·오키나와 세라미스트들의 역할은?

### 1. 머리말: 오키나와(류큐왕국)

오키나와현(沖繩縣)은 일본 류슈에서 대만까지 이어지는 1,300km 해상에 펼쳐진 연결된 160여 개에 가까운 섬들로 이루어진 류큐 열도를 가리킨다 (Fig. 1). 크고 작은 16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섬을 포함해 유인도는 48개가 있다. 일본 유일의 아열대 기후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연평균 기온이 20°C가 넘어 눈도 거의 내리지 않으며, 크게 남부·중부·북부 지역으로 나뉜다.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왕국(琉球王國)이란 독립국이 있었

다. 류큐왕국은 일본, 한국(조선), 중국과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무역을 통해 번성했으며,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1609년 일본 가고시마의 사츠마(薩摩)국이 류큐왕국을 침공하여 정복했다. 이후 류큐왕국은 사츠마국에게도 조공을 바치게 되자 중국과 일본 토쿠가와 막부와와 관계에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츠마의 지배력이 계속 미치게 된다. 메이지유신(1868년) 후 1872년, 일본은 류큐왕국을 식민지로 병합하고, 1879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한다.

주민들은 본토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키가 작고 피부가 검다. 언어는 원래 고유의 언어인 류큐어를 사용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Fig. 1. 대한민국-중국-러시아-일본 오키나와 지도<sup>1)</sup>

했지만 1940년대부터는 사용이 금지됐다. 일제가 한국어 말살 정책을 펼 것 같고 같은 이유인 일왕의 국민으로 만든다는 황민화(皇民化) 정책에 따라 일본어와 일본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작은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 <오키나와의 슬픈 아리랑고개>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미군과 일본군이 오키나와에서 격돌했다. 전쟁 83일 만에 오키나와 본섬에 서만 일본군 9만8000명, 미군 1만4000명, 오키나와 주민 9만8000명, 위안부 460~660명(추정)과 군부(軍夫) 등 한국(조선)인 1만 명이 죽었다.

군부(軍夫)는 일본군대를 위한 막노동꾼이다. 1944년 7월 9일 경북 농촌에서 대구로 끌려간 뒤 부산을 거쳐 시모노세키(下関)에 부려졌다. 아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배를 타고 출렁이는 바다를 건너 외딴섬에 갇혀 있었다. ... 일본 최서단 오키나와(沖繩) 현에 슬픈 사연의 아리랑 고개가 생겨났다.

오키나와의 현청 소재지 나하(那覇) 시에서 고속선으

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아카지마, 아카(阿嘉) 섬이 있다. 아카지마에는 300여명이 살고 있다. 아리랑 고개 표지는 없다. 하지만 아무나 붙들고 아리랑 고개가 어디냐고 물으면, 다들 "아리랑 고개"라며 가리킬 만큼 아카지마에서 아리랑 고개는 보통명사화 했다. "밤마다 한국여인들이 (위안소에서 숙소로 돌아올 때) 구슬프게 아리랑을 부르며 이 고개를 넘어왔다"고 똑똑히 증언한다. 오키나와인들에게 조선인 위안부의 이미지는 그렇게 슬픈 아리랑으로 남았다.<sup>2)</sup>

### 2.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조선)인 세라미스트들이 다시 오키나와로 가서 세라믹 기술을 전하다! 그곳에 참혹한 태평양전쟁이 일어나 한국(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희생당하다!

- 오키나와(류큐)에 귀화해 세라믹 한류를 전한 한국(조선)인 세라미스트(도공) 장헌공(張顯公) -

오키나와에서 자기(磁器) 역사가 시작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조선의 세라미스트(도공)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가서 아리타(有田)에서 도조(陶祖)가 된 이삼평(李參平)에 해당하는 인물인 장헌공(張一六)[후에 장헌공(張顯公)]이라고 불림]에 의해 오키나와 자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왜장 시마즈(島津)에 의하여 류슈 남단 가고시마(鹿兒島)의 사츠마(薩摩)로 잡혀갔다가 류큐왕국 상봉왕(尚豐王)의 요청으로 오키나와에 가게 된다. 시마즈는 가고시마의 영주로서, 도공 심당길(沈當吉)[그의 12대손부터 심수관(沈壽官)이라 함, 현재 14대손]을 잡아간 인물이다. 임진왜란 이후 시마즈는 축적된 군사력을 동원하여 1609년 류큐왕조를 침략하여 복속시켰다. 류큐의 상

<sup>1)</sup>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dhosuk&logNo=10177174334>(2015.2.6. 접속)  
<sup>2)</sup> 신동민, <경복궁경·일본 오키나와, 슬픈 평화... 아리랑>, 동아일보, 2015.2.15.

이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죽어도 미국을 숭배하는 미국에 대한 물신숭배다. 한미동맹에 정당성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즉시 버려야 되는 것이 이성적 판단이 아닌가. 물론 목숨 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길뿐이며, 타성적으로 한미일동맹의 꿈무늬에 매달려서 국 외에는 보이지 않으니, 죽을힘을 다해 남북 화해를 위해 우리도 자립한 주권국가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일본 아베정권은 한미일동맹을 빙자하여 이미 한반도 근해의 군사훈련에도 자위대를 보내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군사개입을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일동맹의 명분으로 눈치를 보지 말고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길이다.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기시와 아베 같은 세력을 '친한파'라고 부르고 숭앙하고 조장시켜온 책임이 있는 것이다.

\_ 2019. 10. 26

'아시아문화' 주최 국제심포지엄

## 오키나와와 동아시아의 평화

동아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한다

###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서 승 지음



이번에 주어진 '오키나와(沖繩)와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스스로 시대의 범위와 문제의 성격이 한정된다. 즉, 서구의 침입자가 이 지역에 가져온 '아시아'라는 타자개념은 침략자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말이며, 동아시아(東亞)는 제국주의국가로 등장한 일본이 메이지 이후 이 지역을 침략하면서 '일본 중심의 지역질서'의 뜻으로 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도, 동아시아도 오키나와에게는 19세기 무렵의 외세의 침략 또는 지배를 의미하는 말이며, '오키나와와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는 동아시아와 오키나와가 동시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룩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 없는 시기, 또는 전쟁과 전쟁의 사이에 있는 시기'라는 의미로 예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쓰여 왔다. '평화'라는 가치가

사람들의 공통의 가치로 인식되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전쟁의 불법화가 거론되어 평화가 인류의 공통의 관심사로 되는 19세기에서 20세기의 이행기에나 가능한 일이다. 동아시아와 오키나와는 지난 150년간 평화로웠던 날이 없었기에 평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주제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오키나와와 한반도에 시좌(視座)를 두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해보려 한다.

### 1. 강요당한 평화와 ‘수례(守禮)’

오늘날 오키나와는 흔히 ‘평화의 섬’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오키나와 사람 스스로 ‘평화’를 오키나와의 정체성이라고 한다. 그 엄청난 ‘오키나와전(戰)’에서 희생된 사람 중 오키나와 사람만이 약 14만 명으로 그 당시 섬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며, 오늘날 오키나와 본섬의 20%가 미군기지로 점유되어 각종 기지에서 발생하는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오키나와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은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 사람들이 온유하고 공동체적인 소박한 인간성이 있으나, 천성이 평화적이며 예부터 무기를 지니지 않는 ‘비무(非武)의 섬’<sup>2)</sup>이었

1) 평화에 대한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다. 단순한 전쟁의 부재, 또는 전쟁과 폭력의 부재에서부터 안전보장론의 시각에서 힘의 균형상태 또는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힘의 존재를 말하기도 하며, 요한 갈통(Y. Galtung)이 말하듯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갈등을 의미하는 ‘구조적 폭력’의 부재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전쟁과 폭력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가 다름이 없는 상태라고 해두겠다.

다는 답론은 다분히 만들어진 이야기다. 오키나와가 15세기에 ‘류큐(琉球) 왕국’으로 통일되기 전에는 서로 싸우고, 1609년 시마즈(島津)<sup>3)</sup>가 류큐를 침공할 때 류큐는 무력으로 저항했다. 류큐를 정복한 시마즈는 류큐사람들의 봉기를 막기 위해 모든 무기를 회수하여 무기의 소지를 금했기에 류큐는 무기를 가지지 않는 ‘비무의 섬’이 된 것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류큐병합’(1879)은 메이지정부가 보낸 560명의 군경의 무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오키나와전, 27년간의 미군정, 일본 복귀 이후에도 국가폭력을 배경으로 하는 통치가 오키나와를 짓눌러 왔다. 오키나와는 미일의 통치체제 틀 안에서 ‘평화’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지, 결코 평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오키나와의 평화주의는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시마즈, 일본, 미국이라는 외세들의 폭력에 의해 저항하지 못하고 평화로움을 강요받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항을 봉쇄당하고 굴종을 강요받아 수단적인 평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침략자들과의 압도적 힘의 차이라는 현실 앞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면중복배(面從腹背)로 일관되어 한정된 ‘평화적’ 수단으로 저항해올 수밖에

2) 1816년에 류큐를 찾은 영국군함 라이라(Rayla)호 함장 바질 홀(Basil Hall) 일행은 1817년에 대서양의 고도에 유배되어 있었던 나폴레옹을 만나 이 섬들(류큐)에 어떤 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를 매우 놀라게 했는데, 그의 이야기는 그의 저서 <조선·류큐 항행기>에 기록되어 큰 반향을 낳았다고 한다(山口栄鉄 <外国人來琉記>, p56).

3) 시마즈(島津)는 류큐 남단의 사즈마(薩摩: 현재의 카고시마 鹿兒島) 일대를 지배하던 다이묘(大名)이다. 1609년 침공 이후 메이지유신까지 실질적으로 류큐를 지배하고, 쇼슈와 더불어 메이지유신의 양대 중심세력이 된다.

에 없었다. 절대적인 국가폭력을 배경으로 한 권력이 그어 놓은 선 안에 오키나와의 저항을 ‘합법적’, ‘평화적’으로 제한해 온 것이며, 그 속에서 엄청난 인내와 ‘절대 꺾이지 않는 집념’으로 헛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비폭력 불복종투쟁을 벌여온 것이다. 이것이 마하트마 간디의 항영투쟁(抗英鬪爭)으로 유명해진 ‘비폭력 불복종’ 투쟁방식이며, 오늘날에도 헤노코의 투쟁방식으로 이어져 있다.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평화운동은 지혜를 모아 그 틀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 방식을 만들어온 것이다.

오키나와의 비폭력주의에 대해서 고(故) 아라사키(新崎盛暉)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자폭동(コザ暴動)(1970)에서조차도 사람에게 대해서 폭력이 휘둘러지지 않았다. 오키나와의 비폭력주의는 발가벗은 폭력과 폭력이 격돌한 지옥과 같은 오키나와전이나 압도적인 힘을 가진 폭력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과 대치할 수밖에 없었던 (미)군정 하의 체험에서 얻은 교훈이 아닌가”<sup>4)</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류큐·오키나와가 압도적인 국가폭력에 직면한 지가 외세(시마즈)의 침략 이후 400년 이상 이어진 일이며,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비폭력’(체념적인 복종)은 내면화 또는 체질화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19세기말부터 이어온 전쟁불법화의 흐름이 제2차 세계대전 이

4) 新崎盛暉 '21世紀世界の中での沖縄-世界平和に向けての可能性', 渡辺治·和田進 編 <講座 戦争と現代 5-平和秩序形成の課題>(大月書店, 2004年, p250).

후 유엔에 의해 명문화되어 인류가 핵무기의 사용에 의한 공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의 세계적인 확산, 일본의 평화헌법 등장 등으로 ‘평화’의 가치가 보편화된 것이 투쟁전술로서의 비폭력 평화주의가 실천·확산되어온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헤노코 반 기지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운동전술이 힘과 기동력이 없는 퇴직 고령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약한 자들의 연좌시위 방식에 적합하다고도 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배를 타고 오키나와를 찾은 외국인들의 탐험기를 보면 류큐 사람들에 대해 예의 바른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다. 수리성에는 ‘수례지문(守禮之門)’이 있으며, 오키나와는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또 하나의 정체성을 ‘예의의 나라(守禮之邦)’에 두고 있다.

유교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예’는 현대인들이 아는 사회적인 예모(매너, 에티켓)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현대의 예는 주체와 객체가 이미 독립되고 평등한 근대시민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전통사회의 예는 사회적 신분질서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수를 지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주어진 규범과 질서에 순종하고 신분의 경계를 넘지 않음을 의미하니, 이 개념 역시 강대한 힘의 지배에 순종해온 오키나와 사람들의 생활규율을 말하는 것이다.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봉건적인 신분질서에 순종하는 대내적인 규율일 뿐 아니라 사대주의 또는 강약부동의 기준에 따라 외세에 순종하는 자세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강요당한 ‘수례(守禮)’라고 할 수 있다.

## 2.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오키나와의 평화

세계대전 후 새로운 헌법 아래서의 일본의 국가적인 3대원칙은 ‘국민주권, 인권, 평화주의’로, 헌법은 그 전문과 9조에서 부전(不戰) 의지를 표명하여 평화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그렇게 추켜세우는 ‘평화’와 오키나와의 ‘평화’는 같은 평화일까. 파시즘 침략전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온 일제는 연합군의 이름을 쓴 미군의 점령을 받아 군국주의의 해체과정을 겪었다.

에당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동아시아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해체하고, 중국을 안정세력으로 하여 일본을 견제하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체제를 구상했다.<sup>5)</sup> 그러나 장개석정권이 무능과 부패가 극심하여 거국항일을 내걸고 압도적으로 농민의 지지를 받은 모택동의 홍군에게 패배했으며, 세계 냉전이 격화(소련과의 적대관계의 현실화)됨에 따라 일본 군국주의 해체를 포기하고 전범 석방, 군국주의 중추적 인물의 등용, 군수산업의 재가동, 자위대 창설에 따른 재군비, 레드 퍼지(적색추방) 등에 의한 ‘역코스’가 시작되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어 미군의 주둔과 일본열도를 반영구적으로 미군기지화시키고,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기동으로 삼는 일본 중심주의로 방향을 전환했다.

미국은 오키나와전 이후, 일본 본토 상륙전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입을

5) 山極晃 編 <東アジアと冷戦>(三嶺書房, 1994, p24).

수 있다고 예측했다. 카미카제 특공대, 반자이(萬歳) 돌격, ‘옥쇄’ 등을 통해 맹목적으로 천황에게 충성하며 ‘멸사봉공’하는 일본 신민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느낀 미국은 대일 승전 후에 일본인의 저항과 미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천황을 처벌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파시즘 세력에 대한 전쟁의 승리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목표를 달성한 미국은 전후의 전략목표를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세계적 패권을 장악하는 데에 두었으며, 전후 처리방향도 이러한 전략에 따라 추진되었다.

미국은 유럽에서도 냉전의 벽을 따라 대처하는 소련 지상군을 담당케 하기 위해 독일의 재군비와 NATO 가맹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독일의 침략을 받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양해를 얻기 위해서 독일의 과거청산과 나치스와의 단절을 철저히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한 최우선 과제는 평화보다 과거청산이 되었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군사점령의 출혈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점령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천황을 미국의 손아귀에 넣고 협력하도록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천황의 실권을 박탈하고 ‘상징’으로만 남게 하여 무력화시키면서 동시에 천황에게 ‘인간선언’을 하게 하고 거구인 맥아더의 거드랑이 밑에 붙어있는 왜소한 천황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국의 비호 하에 놓여있는 천황의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전범인 천황의 면죄에 반대하는 연합국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평화헌

법'을 제정하여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동시에 미일안보조약으로 주일미군이 일본을 제압하여 일본을 '속국화'시키고, 반영구적으로 미군 군사기지화한 일본을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중추로 삼았다. 그 대가로 일본은 군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으며, 냉전의 벽으로 분리된 아시아에 대한 과거청산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일본은 '경무장·무책임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비무장·부전의 평화국가' 일본은 주일미군의 핵과 중무장으로 겹겹이 싸여, 그 속에서 평화주의의 잠에 빠져들었다.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은 인류 최초·유일의 피폭국이고, 비무장·부전의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 평화헌법을 가진 나라'라는 환상을 심었다. 즉, 전쟁의 피해자의식을 부추기면서 이웃나라들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에서 면죄되었다.

사실 일본은 미국의 속국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작전 수행에 온갖 편의를 제공해 왔다. 광주학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세계에서 맨 먼저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 수상이 참석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아시아의 반공·독재정권의 가장 유력한 옹호자가 되었다. 일본의 평화주의는 일본 국민이 원폭 피해자로서의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전쟁 가해자로서의 모습을 은폐했다. 또 미국의 속국으로서의 정치·군사적인 역할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자기기만적인 국민을 만들어낸 면도 없지 않다.

이에 비해 오키나와의 평화는 처절한 지상전의 경험과 오키나와 현민을 차별하여 태연히 희생을 강요한 일본군의 비인간적 잔인함, 그리고 전후 폭력적인 미 군사통치를 경험하여 얻은 전쟁과 군사기지 반대의 군센 의지에 뒷받침된 평화주의다. 지상전을 겪지 않은 곳에서는 참된 반전의식이 움트지 않는다고 한다. 오키나와는 지옥과 같은 지상전을 겪었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주의처럼 관념적이고 면죄부로서의 평화주의가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경험적인 반전·반군·평화사상이 뿌리를 내렸다.

### 3.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위치의 변천

류큐왕조는 14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바다에 열린 '대 교역시대'의 번영을 누린 바가 있으나, 지정학적으로 변경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 대륙국가이자 바다를 두려워하는 중국에서 보면 류큐는 몇 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치는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다.

일본으로서도 류큐는 머나먼 변방의 이국(異國)에 지나지 않았다. 류큐 왕조가 일본의 최남단 사츠마(薩摩)에 있는 시마즈번(藩)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경위는 시마즈가 재정적 어려움을 보충하려고 류큐에 눈독을 들인 것과, 도요토미에게 공을 세우려고 류큐왕에게 조선침략에 참전할 것을 종용한 데서 사단이 일어났다. 명나라와 조공관계를 가졌던 류큐왕조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요구였기 때문에 군량미만 일부 제공하는 것으로 무마하려 한 것이 시마즈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게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 천하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으로 끊긴 명과의 교역의 회복을 원했으며, 거절당하자 류큐를 중개자로 교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도쿠가와와의 승인을 받은 시마즈는 1609년, 3,000명의 무사를 동원하여 류큐를 침범했다. 이후 류큐는 명과 시마즈에 대한 양속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시마즈의 식민지로서 전락하여 가림주구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sup>6)</sup>

스페인이나 미국이 미지의 바다, 태평양항로를 열고 동아시아에 밀려올 때까지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에 붙어있던 일본,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등은 변방의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이 서구열강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시아의 현관으로 변모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작은(小) 제국으로 등장한 일본과 신흥 자본주의국가인 미국은 만주의 철도이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게 되고,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고취하며 중국 침략의 의도를 노골화하자 영미의 이권과 대립하여 태평양은 각축장이 되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배를 거듭하여 본토 수비에 급급하게 되는 1944년이 되자 중폭격기의 비행거리에 속해 있는 오키나와는 미국의 쟁탈대상이 되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자 미군이 직접 지배하고 조밀한 미군 기지로 무장된 오키나와는 냉전의 최전선 기지로 자리매김 되어 '기지의

6) 新城俊昭 <教養講座 琉球・沖縄史>(東洋企画, 2015, p105-113).

섬'으로서 고난의 길을 걸었으며, 군사화를 가속하는 일본은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대두에 따라 자위대의 정면을 북해도에서 중국에 가까운 오키나와로 이동시키고, 오키나와의 무장화에 박차가 가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역사에서 오키나와의 전쟁과 군사화는 오키나와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의 의도와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발생해 왔다. 오키나와는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접촉면으로서 각축의 장이 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 평화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대립의 경계를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키나와의 평화는 남북이 대립하는 38선을 대립과 단절의 선에서 소통과 융합의 선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한반도 평화시대'와 연동되어 있다고 하겠다.

#### 4. 동아시아와 오키나와의 평화

미(美) 해병기지, 공군기지로 동아시아 냉전의 최전선에 선 오키나와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폭격기와 전투부대가 날아가는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전쟁터의 참화를 겪은 오키나와는 윤리적인 반전을 주장하는 데서 나아가 전쟁이 터지는 경우 오키나와가 화를 입게 될 가능성도 우려하여 반전운동을 벌여온 것이다.

B52 중폭기가 출격하고 베트남에 맹폭격을 가할 때 오키나와에서 B52기 출격 반대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으며, 1991년 주(駐) 오키나와 미 해병

대가 출동한 이라크전쟁 때도 대규모 반전시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로 일본 전국에 극심한 반복한 여론이 고조할 때, 오키나와에서는 해마다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100명 규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방문단이 조직되어 평양 방문을 하곤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다. 북·미 갈등이 심화되어 상호 무력행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북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곳이 미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일 수밖에 없기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하등의 적대감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북과의 친선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민중들은 20년에 걸쳐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확장하고 고전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엄청난 압력에 맞서서 헤노코의 군사기지 이설(移設) 반대운동을 비폭력 불복종으로 계속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우경화되어 가는 아베정권의 일본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화, 인권, 반미군기지의 가치를 드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縣)지사 선거, 중참의원 선거에서 오키나와 기지반대를 외치는 ‘올 오키나와(All Okinawa)’가 완승하고 있어서 아베정권의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오키나와 사람들의 평화의 염원은 깊고 행동은 과감하다.

동아시아의 평화의 조건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침략 지배해온 구미, 일본의 제국주의, 그리고 그 잔재세력의 일소와, 각 민족의 주권을 확립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제국주의 지배 아래서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아 집단적, 개인적 피해의 구제를 실현시켜야 한다.

2001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개최된 유엔 주최의 ‘반인종주의·차별 철폐’ 세계인권대회에서 노예제와 식민지 지배를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선언하고, 가해자들의 전면적인 과거청산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오키나와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에 말려들어갈 위기, 군사화·기지공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범죄, 오키나와 차별, 역사인식, 아베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 등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일본을 추구하며 오키나와를 희생시켜도 된다는 아베정부의 오키나와관(觀), 군사·안보정책, 역사인식, 이웃나라들과의 외교관계 등에서 파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 지배의 청산이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동아시아와 오키나와의 평화의 조건은 굳게 연결되어 있다.

아라사키 교수는 그 불가분의 연결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공생·통일이 없다면, 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현재·미래를 식민지 지배에서 남북통일까지를 꿰뚫어 일본은 이 문제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일한민중의 상호이해와 연대는 아시아에서 세계로 ‘평화’를 확장해 나가는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때 미군정·지상전·미군기지 문제라는 공통의 역사적 체험과 과제를 배경으로 한국과 다양한 교류실적으로 쌓아온 오키나와는 일한민중연대의 연계고리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거기서 오키나와의 가능성이 검증되는

7) 徐勝, 前田朗 編 <文明と野蛮を越えて:わたしたちの東アジア歴史・人権・平和宣言>(かもがわ出版, 2011) 참조.

것이다.”<sup>8)</sup>

여기에서 오키나와와 한반도의 불가분의 관계가 드러난다. 근현대를 통해서 양 지역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으며, 일제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민족적 말살(Genocide)’의 위기에 직면했다. 대규모의 지상전을 겪어 참된 평화의식을 가질 수 있는 소지를 공유하고 있다. 냉전시기에는 미국의 최전선 군사기지로서 과중한 군사부담, 미군범죄,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공해, 인종차별 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공통성이 바로 식민지시기의 일제와 냉전시기의 미·일이 만들어 온 ‘동아시아의 음화(陰晝, negative print)’인 것이다.

오키나와에서는 이 역사에 새겨진 음화를 검증하여 동아시아 평화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과제의 첫째는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유린의 역사이며, 둘째는 그 지배와 차별의 수법이고, 셋째는 전쟁의 엄청난 참화이며, 넷째는 군사주의·군사문화의 폐해를 밝히는 일이며, 다섯째는 희생자들의 권리회복이다.

우리나라와 오키나와의 직접적 관계는 그다지 깊지 않으며, 오키나와전에서 동원된 군부(軍夫)가 1만 명, 일본군 ‘위안부’ 1천 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듯이 오키나와전에서 가시적인 형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증연구는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하겠다.

8) 新崎, 앞의 책 p270.

## 5. 죽은 자는 말한다

유골 수습은 종교적 정신적 의미도 있겠으나,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를 구축함에 있어서 죽은 영혼을 다시 불러내어 말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쟁희생자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조직적 유골 수습, 천황의 전몰자 위령 행각도 있으나 전쟁희생자에 대한 위령이나 유골 발굴이 결코 ‘나라(일제)를 위해서 희생된 자에 대한 감사나 현찬’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전쟁과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준엄한 고발과 비판이 되어야 한다.

오키나와에는 최근 ‘한의 비’처럼 전쟁과 군국주의의 민족억압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기념비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제와 침략전쟁의 미화로 일관되어 있다. 한국인 위령과 관련하여서는 카카즈(嘉数) 고지에 ‘청구지탑(靑丘之塔)’이 있고, 마부니(摩文仁)의 평화기념공원에 한국인위령탑이 있다.<sup>9)</sup>

‘청구지탑’은 1971년 교토의 우익 니시다(西田玉堂)가 ‘일본민주동지회’의 이름으로 가카즈 고지에서 죽은 316명의 한국·조선의 군인·군속을 ‘위령·현찬’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sup>10)</sup> 비문에는 ‘이데올로기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인도주의에 준법하고… 위령·현찬’한다고 했을 뿐 전쟁과 동

9) 이에 관해서는 제주대 조성윤 교수의 논문, ‘전쟁의 기억과 재현: 오키나와 현립 평화기념 자료관을 중심으로’(2011)가 있다.

10) 서승, ‘아시아의 냉세-오키나와 자립 독립의 힘’,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창비, 2011, p70).

원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말은 한마디도 없다. 한국인위령탑은 1975년 ‘유신’의 와중에 박정희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 건립의도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지만, ‘위령탑’은 ‘평화의 초석’이 있는 광장 사이에 남서쪽 언덕에 있는 마부니 위령묘역과 마주보고 있다. 위령묘역은 홍성담 화백이 ‘오키나와의 야스쿠니’라고 불렀듯이 각 지방 단위의 위령묘원이 만들어져 있으며, 유족과 일본 고관들이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찾아오곤 하는 장소다. 박정희의 염두에는 일찍이 어깨를 걸고 함께 싸운 전우들과 함께 현창되기를 원하고, 북해도나, 교토, 히로시마 등과 나란히 위치하기를 원했을 것 같다.

유골은 말은 못하지만,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유골 발굴의 큰 이유가 아닐까. 일본 군국주의와 그 후예들, 한국의 친일족속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은 이들을 영웅화하고 ‘역사 전쟁’에 동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한 맺힌 이야기에 정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참된 동아시아 평화 속에서 편히 잠들게 해야 한다.

\_ 2019. 10. 24

자료집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오키나와전 전몰자 유골조사 및  
한인 유해봉환을 위한 제언”

## 광주5·18과 제주4·3의 저항권에 대해서



### 1. ‘국가테러리즘’이 아직 사람들 머릿속에서 위세를 떨치는 나라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1997년 2월 타이베이에서 2·28사건 50년을 기해 ‘타이완 계엄시기 백색테러’의 진상규명을 중심 주제로 한 ‘제1회 동아시아의 냉전과 국가테러리즘’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의 과거청산운동은 1990년대에 싹트지만 대부분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책임을 주제로 했으며, 냉전시기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미군범죄와 국가폭력을 정면으로 다룬 운동은 없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진 우리 심포지엄 운동은 냉전시기 타이완, 오키나와, 한국, 일본에서의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과 수난자의 명예회복·보상을 요구하여 역사의 정의를 회복하려는 운동이었다. 수백 명의 국가폭력 수난자, 민간운동 활동가, 연구자의 3자가 결합하여 참가비를 자부

끝